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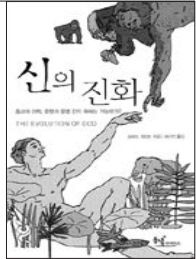
Books

“종교는 선도 악도 아니며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다”

신의 진화

로버트 라이트 지음

‘도덕적 동물(The Moral Animal, 1994년)’, ‘넌제로’(Nonzero, 2000년) 등을 저술한 미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버트 라이트의 ‘신의 진화’가 번역돼 나왔다. 원제 ‘THE EVOLUTION OF GOD’



저자는 이번 책에서 사람이려면 누구든지 가져 보았을만한 질문 즉, ‘신이 존재할까?’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종교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며 전쟁을 벌이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저자는 역사학, 인류학, 철학, 고고학, 진화생물학이라는 학문적 사유로 고대 바빌론 시대부터 9·11 테러 이후까지 ‘신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추적하며 이 문제를 풀어간다. 책의 핵심은 제목에서 보듯이 ‘인간이 진화해 왔듯 신도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나 알라, 예수 같은 특정한 신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혹은 신자들이 인식하는 ‘신’을 의미한다.

저자는 인간이 생물학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진화해 왔음을 인류학의 시선으로 들여다 본 전작 ‘넌제로’에서처럼, 역사학·인류학의 프리즘으로, 그러한 신 혹은 종교가 수렵채집사회, 족장사회의 원시 종교에서 고대국가의 다신 신앙을 거쳐 어떻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일신 신앙으로 진화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추적해 나간다.

책은 기본적으로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종교와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도킨스의 무신론처럼 극단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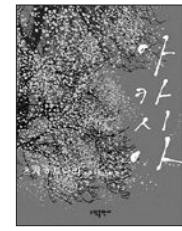
저자는 “인간은 신의 진화와 종교의 성숙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간 종교간 갈등속에서도 그리스도교 6개 종파가 공동 관리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예루살렘 성묘교회.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오히려 책은 종교를 비판하면서도 낙관적인 관점에서 종교의 미래를 논한다. 단적으로 “종교란 기본적으로 선도, 악도 아니며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해 왔으며, 사람들이 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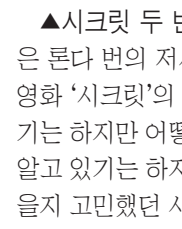
즉 종교가 편협함과 정쟁을 조장해 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기존의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 관한 통념을 무너뜨리는 몇 가지 문제제기도 눈에 띈다. 모세가 중동지역에 일신 신앙을 정착시켰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실 고대 이스라엘은 바빌론 유수기 이후 때까지 다신신앙국가였다는 점이나 예수는 실제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극한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자는 학자적 자세로 그 근거를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해야 하며, 도덕적 상상력(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조명이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일부 종교적 극단주의(예를 들면 유대-기독교의 서방 세계와 이슬람 세계와의 갈등)를 염두해 둔 미래를 위한 우회적인 경고로 읽힌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화의 충돌, 종교 간 대립, 민족 간 대립을 목격하고 있다. 저자는 또 다른 차원의 대립인 과학과 종교의 충돌이 사라지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부각시켰다. 아울러 책은 우리가 인식하는 신의 진화와 종교의 성숙을 통해 현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동북사이언스·2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아카시아=냉정과 열정 사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의 작가’ 초지 히토나리(51)가 첫 출간한 단편집이다. 매일 같은 시각 나타나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사라지는 정체를 여자화와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 변화를 그린 ‘포스트’ 등 여섯 편의 단편을 담았다. 현대사회와 문명의 비인간적인 풍조들을 자신만의 독특한 허구적 상상력과 결합해 간결하면서도 건조한 문장으로 풀어냈다. <소담·1만원>



▲시크릿 두 번째 이야기-TEEN POWETR=성공의 비결을 담은 100번의 저서 ‘시크릿’의 상세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 ‘시크릿’의 제작자 폴 해링턴이 썼다. 돈의 시크릿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인간관계의 비밀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틀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명쾌한 답안을 제시해 준다. <살림·1만2천원>



▲캔들 플라워=2008년 촛불 정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주목받은 김선우 작가가 예스24 나비 웹진에 연재했던 작품. 그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이번에도 역시 소설의 주요무대는 2008년 촛불의 밤들이다.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따뜻한 우정으로 손을 맞잡았던 그 순간, 모두 ‘캔들 플라워’가 되었던 그 순간을 소설에 담아냈다. <예담·1만2천원>



▲더 박스=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나는 전설이다’(I Am Legend)의 원작소설 작가 리처드 매드슨의 단편집. 버튼을 누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지만 대신 누군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표제작 ‘버튼, 버튼’ 등 여러를 찌르는 반전을 담은, 흥미진진한 이야기 10편을 담았다. <노블마인·1만1천원>



▲허영남 식객 26=부부가 된 진수와 성찬이 손님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연다. 최고의 양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집들이 음식이 소개된다. 진수·성찬의 집들이 날에 등장하는 오마 참치회, 갈비찜, 잡채 등은 보는 것만으로 침이 고인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 요리들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운동 뒤 동료들과 함께 먹는 해상극한 그릇, 최고의 복날 음식 민어 요리, 신선하고 시원한 불꽃 등 별미들이 줄줄이 소개된다. <김영사·8천500원>



▲함양과 체찰-조선의 지성 퇴계 이황의 마음 공부법=‘함양’이란 능력이야 품성이 그리고 닦는다는 뜻이며 ‘체찰’은 몸소 자제해 살펴보는 뜻하는 말이다. 퇴계의 생애와 사상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자성록’을 빼다로 퇴계의 가르침을 재구성했다. 또 ‘활인심방’과 ‘수신심훈’ 등 퇴계 이황의 행동지침을 첨가해 그의 삶과 철학을 소개한다. <미다스북스·1만7천원>



▲세상의 혼-시간을 말한다=‘밤으로의 여행’에서 밤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을 시적인 언어로 풀어냈던 캐나다 작가 크리스토퍼 유드니가 쓴 ‘시간’에 관한 에세이. 저자는 독자를 시간 여행의 세계로 초대해, 시간의 자연과학·철학·역사와의 황홀한 만남을 선사한다. <예원미디어·2만원>

세계 피겨 역사 새로 쓴 스무살 김연아의 이야기

세계 피겨 역사를 다시 쓰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겨 여왕’ 김연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쓴 ‘김연아의 7분 드라마-스무살 김연아 그 열정과 도전의 기록’을 펴냈다.



피겨를 처음 시작한 7살부터 밴쿠버 올림픽을 준비하는 지금까지 이야기와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에는 내밀하게 감춰졌던 자신의 생각을 비롯해 식단, 콤플렉스, 이상형, 화장법 등 팬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등을 털어놓았다. <중앙출판사·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딸꾹,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운택 지음

‘문화 계필라’로 불리는 이운택씨가 황지우, 이창동 등 내로라하는 여섯 명의 예술가와 나눈 대담을 엮은 ‘딸꾹,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펴냈다. 1999~2005년 발간된 계간지 ‘관전21, 계필라’에 수록된 시인 황지우, 영화감독 이창동, 작곡가 원일, 연출가 임진택, 명작 안숙선, 가수 전인권 등과의 대담이다. 1999년 봄부터 2005년 가을에 걸쳐 나온 거침 없는 대담은 길게는 11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유효한 그들의 꿈과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담고 있다.



영화 ‘박하사탕’을 촬영하던 1999년 여름, 이창동 감독은 “일상성이 지배하는 시대, 그 일상을 재료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야기꾼은 그 일상을 말, 언어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로라하는 예술가 6명이 바라본 세상

“우리 시 쓴 거는 세상이 우리를 건드려버렸기 때문에 나왔던 이런저런 단말마적인 제스처들이겠지.”(황지우)
“소리라는 것이 득음을 해서 명상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사의 모든 물질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부딪혀가지고 자꾸 거기에서 느끼는 것.”(안숙선)
대담집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한국사회를 가로질러 온 여섯 명의 예술가들을 다시 불러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 지금도 꿈꾸고 있는가? 되묻고 있는 듯하다.
영화 ‘박하사탕’을 촬영하던 1999년 여름, 이창동 감독은 “일상성이 지배하는 시대, 그 일상을 재료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야기꾼은 그 일상을 말, 언어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가을 가수 전인권은 대마초 사건과 영화 배우 고(故) 이은주에 대한 발언 등으로 인한 과문에 대해 “무대에 올라가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재밌었죠?’ 하면 관객들이 박장대소한다. 그러면 똘조”라고 말했다.
책을 엮은 이운택씨는 “여기 여섯 명의 예술가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 놓은 예술적 성과물들은 시대와 조우하고 불화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딸꾹질이다”라고 쓰며 제목에 ‘딸꾹’이 붙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조금 오래된 글이고 거친 문장짓기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술가로서의 면모와 진한 체취를 느낄 수 있다. <도오·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건-1번)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가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과 백영사이)

총별	임대	권장 용도
1층 555㎡ (168평)	1,800만원	금융기관, 의류 등
2층~4층	400~500만	병원, 학원 사무실

상가 매매, 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주변)

총별	임대	권장 용도
9층 350㎡ (107평)	350만원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
10층 495㎡ (150평)	350만원	

상가 임대
(동림 2지구 정류장 앞)

총별	임대	권장 용도
5층 495㎡ (150평)	280만원	학원, 노래방 등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분양 수완지구 롯데마트 앞 **임대** 엘리스타워빌딩 **대**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의류아울렛, 파스타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미리레스토랑, 전문식당, 의류아울렛,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바둑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 영어, 수학, 인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카이라운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명 (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옆 10×10×6m코너 상업용지270㎡ 무자취고,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완동 주변대모현(35m,4번로) 3층사무실 140㎡ ㎡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빌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빌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전문가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구분	소재지	대지/건물	평	총/상/상	감평가	최저가	비고
근린주택/월세	소매지	대지/건물	평	총/상/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도원동	중소/대지	25	15/14	583억	387억	
	도원동	중소/대지	25	15/14	583억	387억	
	도원동	중소/대지	24	14/4	583억	387억	
	신원동	중소/대지	22	20/4	192억	80억	
	신원동	중소/대지	32	15/1	785억	522억	
	신원동	중소/대지	40	6/3	197억	985억	
	신원동	중소/대지	40	10/1	391억	194억	
	신원동	중소/대지	27	5/3	191억	485억	
신원동	중소/대지	24	22/5	192억	92억		
신원동	중소/대지	24	17/1	981억	683억		
신원동	중소/대지	24	13/7	527억	387억		

구분	소재지	대지/건물	평	총/상/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주목/계개별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구분	소재지	대지/건물	평	총/상/상	감평가	최저가	비고
근린주택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신원동	대지/건물	25	15/14	391	683억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2010년 2월 28일(금)까지 정선 50명(15과과정)
상담 및 접수 236-3400

모임안내
• 부동산경제를 통한 저테크에 관심있는 주부 직장인
• 실전경제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및 경제업무종사자
• 금융기관 대출, 채권, 담보 및 전입경매투자자